

□ 하계 농촌봉사활동 체험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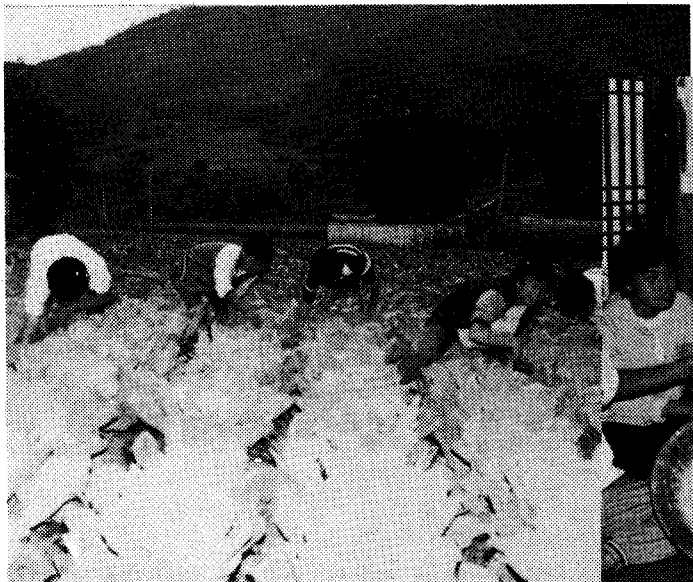
농활이란 마약은 즐거운 유혹 (?)

농활이란 쉬운 것이 아니다. 혼한 모꼬지같은 것이 아니다. 수련회같은 것도 아니다. 농활이란 언론에서도 농촌봉사활동이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은 농민학생연대활동의 준말이라는 것은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알거라 믿는다. 그리고 농활을 경험해 본 사람은 너무 힘든 과정속에서도 느끼는 무언가 때문에 다음 농활을 손꼽아 기다리게 된다. 그 무언가는 농활을 안 가본 이에게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지 못할 것이다.

비로 인해 봉사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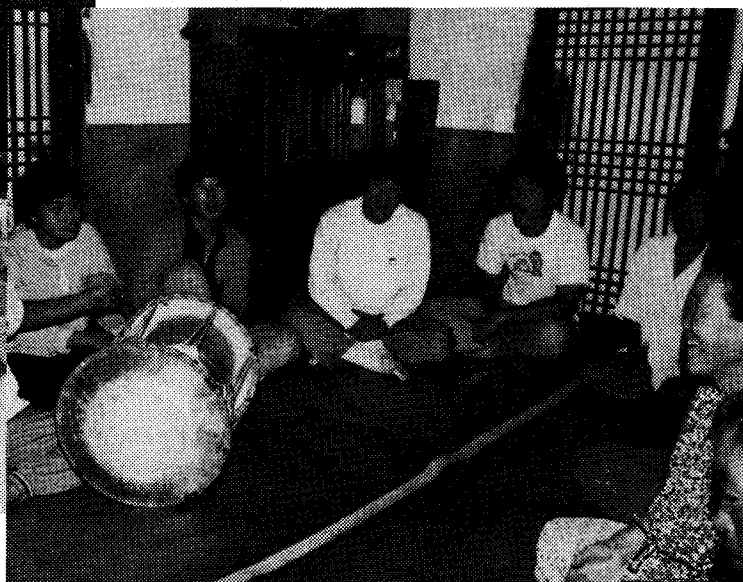
나에게 있어 6번째의 농활이 되었던 이번 여름농활은 너무나 힘들고 고민도 많이 안겨 주었다. 사회적으로도 상황이 좋지 않았고, 국내 상황도 많이 안 좋을 때였다. 사람은 꾸러이지 않고, 농활기간내내 비가 거의 계속 와서 작업도 많이 못하고 농민분들께 정말 죄송스러웠다. 농민회 형님들, 마을 주체분들의 얼굴에도 실망감이 가득한 느낌이 들었다. 팀장을 맡게 된 나였지만 여름농활은 고작 2번째고 비가 올 때의 대비책이 없던 터라 막막하기만 했다.

그때 언젠가 한 선배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생각이 났다. 이야기 농사가 진짜 농활을 할 수 행한거라는 이야기가 생각났다. 농활에서 작업이 매우 중요하기는 하다. 작업으로 농민분들의 신뢰를 얻고 그위에 이야기 농사를 짓는게 가장 완벽한



▶이집 저집 방문하며 나는 이야기로 마을 사람과 농활대원들 모두 더욱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계속되는 비로 농활기간 내내 농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대학 생활에 꼭 필요한 체험 농촌 도움 안된 반쪽 농활 아쉬워

농활이다. 하지만 작업으로 너무 피곤하고 졸려워서 꾸벅꾸벅 조시는 농민분들과 이야기할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어떻게 보면 비가 많이 온 것이 행운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집, 저 집 방문을 하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우리가 원했던 정도의 성과에는 못 미쳤지만 그래도 마을분들 모두와 친해졌고, 농활대원들

대학생활 필수경험

이번 농활은 반쪽의 농활이었다. 기분이 찡찡한 이유는 이야기 농사만 지었다는 아쉬움이 있었고, 인원수도 너무 조금이며 어서 비가 안오는 날도 몇 가구의 일박에 도와드리지 못했던

것이 너무 죄송했다. 그래서 올 여름안에 꼭 다시 한 번 찾아뵙기로 약속을 하고 서울로 올라왔다. 농활은 아무리 잘 해도 아쉬움이 남고 그중 여름농활은 더욱 그런 법이다. 하지만 이번 농활은 정말 아쉽고 농민분들에게 너무 죄송스러웠다. 그래서 문리대 전체가 될지 우리과 만일지는 몰라도 8월초에 짧게라도 농활을 가기로 했다.

농활이라는 것에 꼭 빠진 사람들이 주위에 많을 것이다. 왜 그런지 물어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와 반대로 농활에 꼭 빠진 사람들은 농활을 한번도 안 가본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농활은 대학생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꼭 경험해 보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 또한 그런 생각에 갔다가 완전 빠지기는 했지만 말이다. 농활은 마약이라고도 하고 농촌이라고도 한다. 한번 가기 시작하면 계속 가게 된다고 해서 생긴 말이다. 마약은 안 좋은 거지만 농활이라는 마약만큼은 대학생이라면 먹어보시길...

양진성
<생물 2>

朔風

90년대 놀이문화의 화두는 방(房)이다. 노래방, 비디오방, 게임방, 전화방...

주객이 골목까지 갖가지 방들이 간판을 내걸고 있다. 그리고 방수만 큼이나 많은 구원 소문들이 풍겨 나 오고 있다.

일명 '빨간 마후라'에 등장했던 여중생의 탈선의 첫걸음을 디딘 곳도 비디오방이었다. 가정주부가 나른한 오후, 전화 한 통으로 유혹을 받는 곳도 방이다. 직장인들이 절대라는 이름 아래 퇴폐를 즐기는 곳도 '룸'이라는 방이다. 서너 평도 안되는 방들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숨어있기 좋은 방이기 때문이다. 방에 들어가면 익명성이 보장된다. 고래고래 소리를 내질러도, 밝은

곳에서는 차마 하지 못할 짓을 저질러도 참견하는 사람이 없다. 오죽했으면 '도덕 불문지대', '자본주의가 아랫도리를 벗는 곳'이라고 했을까.

방을 통한 놀이문화에는 어느 정도의 중독성도 있다. 주기적으로 방속으로 들어가 광란의 밤을 보내야 후련해진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게다가 여기에 한계효용의 법칙까지 작용한다. 어제 유흥을 즐기고 놀았다면 오늘은 아랫도리까지 벗고 놀아야 잘นอน드는 기분이 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방 속의 놀이는 점점 비정상적으로 변해간다.

또한 눈여겨볼 것은 '광란의 패거리 의식'이다. 여럿이 함께 들어간 방 속에서는 광란을 가장 심하게 부리는 사람이 주인공이 된다. 노래방

방(房)을 열어라!

에서는 콘소리로 악을 써대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전화방에서는 한 건 올려 회포를 풀었다는 사람이, 룸에서는 가장 많이 만지는(?) 사람이 주인공이 된다. 광란을 부리기를 주저하는 사람은 놀 줄 모르는 사람으로 치부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주 전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에서조차 신독(愼獨)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방 속에서는 '공자님도 예수님도 아니 노지'를 못한다.

고인 물이 썩듯 닫힌 방도 썩는다. 그리고 그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정신도 썩고 우리의 놀이문화도 썩는다.

적은 비용으로 저든 생활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곳이라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에는 방은 너무

무 굳게 닫혀있고, 그 속에 우리는 너무 깊이 숨어있으며, 닫혀있는 방속에서 풍겨 나오는 도덕성 상상이 썩어 가는 냄새는 더이상 맡고 있기가 힘들다.

이제 방문을 열어야 할 때다. 먼저 '놀이=말초적 자극'이라는 놀이에 대한 패쇄적인 우리 생각의 방문을 열어라 한다.

그리고 칸칸이 처진 방의 칸막이를 걷어내고 방문을 활짝 열어 우리의 정신과 놀이문화에 바람이 통하게 하고 햇빛이 들도록 해야 한다.

그나마 다들 슬러는 것은 방문을 여는 열쇠를 방을 만든 사람들이 아니라, 방 속에 갇힌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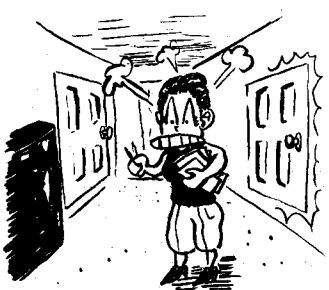
<翼>

□ 나는 이런 아르바이트도 해봤다

불신평조, 아르바이트의 적

방학이 한참 지난 후에야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된 나는, 남들이 흔히하는 서빙같은 아르바이트가 아닌 설문조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주변에선 사람들이 설문조사에 잘 응해 주지도 않을 뿐더러 고생해서 설문조사를 해가도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주춤해선 아르바이트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등 별로 좋은 얘기는 해 주지 않았다. 하지만 난 자신이 있었고, 처음 설문조사지역으로 가는 첫날엔 열심히만 하면 내게 맡겨진 설문지 25장을 충분히 해낼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이 철철 넘쳐 흐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럴수가! 막상 집집마다 찾아 다니며 설문조사에 응해 달라고 말을 해보니 문을 열어 주는 집이 거의 없었다. 첫날 겨우 겨우 완성



한 설문지는 5장뿐이었다. 막이 동네에 도착했을 때의 그 자신감은 다 어디로 갔는지 '힘들다'라는 생각만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5일동안 내게 맡겨진 중화동이라는 동네를 발이 부르드도록 헤매고 다녔는데도 겨우 13장만을 완성하였으리라. 그나마 주위사람들 말처럼 조사된 내용이 맘에 안든다며 겨우 6장의 설문지만이 제대로 통과되었다. 결국 고생한 것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아르바이트비를 받고 만족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설문지 조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우리 나라 사람들의 불신평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행여나 내가 무슨 해라도 끼칠까 봐 이따금 저평계로 문을 열어 주지 않던 사람들, 그들을 욕할 수는 없겠지만 서로가 서로를 더이상 신뢰하기 어렵게 된 오늘날의 사회 현실을 직접 몸으로 느끼게 되어 쓸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아무튼 좋은 경험이었었고 다른 사람들이 설문지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친절하게 그리고 민심이 가게 행동해야만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해 주고 싶다.

이희라
<문리대 화학 3>

□ 농민은 채소를 우리는 농민을 가꾼다

약 봉지에 담긴 봉사정신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쌀과 여러가지 채소들을 돌보시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비록 잊은 적은 있을지라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없다. 생각할수록 참 고마운 분들이다.

그런데 '농작물을 돌보시는 그 고마운 분들의 몸은 누가 돌봐줄까? 우리 농촌의 의료서비스는 얼마나 잘 되어 있을까? 하는 것들은 많이 간과했던 것 같다.

나는 아직 약을 지을 수 없는 입장이어서 대기실(보건의료에서 작은 부위)에서 접수와 당도, 혈압 체크 등의 기본적인 일을 했다.

아무튼 빈 손으로 왔다가 갈 때는 큼직한 약봉지(6주~8주치의 약을 지어드렸음)를 달랑거리시며 흐뭇해 하시는 얼굴들이 처음에는 은근히 해학적이던 생각이 났고 나중에야 나는 참 순박하시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오랜 시간 거기

주르리고 앉아서 땀내나는 당뇨 검사 받는 것이 짜증스럽기도 했지만, 다행히 큰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서 끝나고 나서도 마음이 가벼웠다. 다만 그분들이 스스로의 질병에 대해 무심하시고 또 더러는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가겠다는 분들도 있어서 농촌의 의료 시설이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점이 아쉽게 느껴졌다.

김윤재
<약학 2>

□ 방학중 학내동아리는...

푹푹 찌는 날, 애니메이션관람 어떠세요

일자	28일(월)	29일(화)	30일(수)	31일(목)
시간				
11:00	Eva #1-2	Eva #9-10	Eva #19-20	전담 0080 #1-2
12:00	Eva #3-4	Eva #11-12	Eva #21-22	전담 0080 #3-4
1:00	정	심	시	간
2:00	Eva #5-6	Eva #13-14	Eva #23-24	전담 0080 #5-6
3:00	Eva #7-8	Eva #15-16	Eva #25-26	메모리즈
4:00	붉은 돼지	Eva #17-18	바람계곡의 나무시카	귀를 기울이면
5:00		바다가 들린다	추억은 방울방울	공각 기동대
6:00	동경 바빌론 #1-2	마르코스 플러스		
7:00				
8:00				

오늘부터 31일까지 4일간 복지회관 1층 공연장에서 '에반게리온' 및 애니메이션 상영회를 상영한다.

서울캠퍼스 만화동아리 한그림에서 주최하는 이번 영화상영은 에반게리온, 전담

0080, 붉은 돼지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게 된다. 상영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관람료는 에반게리온, 전담 0080은 1천원, 에반게리온 전편은 1만원 그리고 그의 만화는 한판만 2천원이다.

일본유학·연수

동경: 國際外語學院

(2 1-9, HIGASHI-KANDA, CHIYODA-KU, TOKYO JAPAN)

1997년 여름방학 어학연수 및 유학생 모집

나의 미래는 내가 만들어 간다.

당신의 꿈은 허상이 아닙니다.

꿈과 미래를 잡기 위해...

출발하십시오!



확실히 집으십시오

日本語 그리고 당신의 미래
당신의 꿈을 현실로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전문학교 · 대학 · 대학원 진학 집중지도

일본에서 6년이상 공부하고 온 졸업생이 상담 · 수속대행

※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연락사무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1동
657-4 303호
TEL 452-5157, 3437-6777
FAX 3437-6778

코스	학기	수업시간	학비
일본어 정규 (매일) 월 ~ 금요일	1월	9:10~12:30	반년분: 240,000
	4월	13:10~16:30	입학금: 50,000
	7월	(1일일4시간)	교재비(반년): 10,000
	10월		선교료: 20,000
단기연수코스 1~3개월	수시		시설유지비 및 제 경비: 30,000
			1개월: 40,000
			1개월반: 60,000
			2개월: 80,000
			3개월: 120,000
			입학금: 10,000
			시설유지비및 제경비: 10,000

【입학자격】

연령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12년(초, 중, 고) 이상의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

【본인 준비서류】

1. 입학원서: 본인 자필(학원에 제출: 국제외국어학원)
2. 이력서:

①본인자필 서명, 경력, 출입국 경력, 학력은 국민학교부터 최종 학력까지 기재(한자로 세부적으로 기입한다)

②취학이유서(유학의 목적을 정확히 기재)
(일본어 번역에는 번역한 사람의 이름과 도장,본인과의 관계를 명시)

3. 졸업증명서: 최종 학교의 졸업증명서와 성적 증명서

4. 재직증명서: 신청서 취직해 있는 경우

5. 여권 복사: 여권 앞면과 입 · 출국이 있는 페이지도 복사

6. 사진: 3cm×4cm 6매(6개월 이내)

※일본 체류증 일체 학비, 생활비를 자기자금으로 지불하는 경우 잔고증명서와 그 재원을 증명하는 납세 증명서 필요. 잔고 증명서는 영문이 좋습니다.

【경제 보충준비서류】

1. 서약서: 기입방법에 대해서는 문의하여 주십시오.
2. 잔고증명서: 은행발행의 서류(가능하면 영문으로)

3. 재직증명서: 회사원의 경우는 재직 증명서

4. 소득증명서: 납세증명서

5. 호적등본: 본인과 지불자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인과 지불자의 이름에 색인을 표시한다)

6. 기타
※ 상기에 학교,회사로부터 추천장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 일본입국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당하게 확실한 취학 이유와 경제적인 뒷바침을 할 수 있는 서류가 중요합니다.

※ 하얀 수정액으로 정정하지 마시고 틀리면 다시 쓰십시오. 정정하는 경우에는 라인을 치고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